

예기치 못한 복

김광년_신내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중경회장



나는 나그네 목사입니다

건축을 위해 마음을 모아 가던 어느 날 우연히 교인들이 하는 말을 스쳐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교인들이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교회를 짓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은 떠나면 그뿐이지만 나머지는 우리 교우들이 다 책임져야 한다.” 그 순간 담임목사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한 후 이야기하였습니다. “지역교회(Local Church)를 기준으로 한다면 65년 이상 이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 온 여러분이 당연히 교회의 주인입니다. 저는 35년 이상 목회 하였지만 신내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곳에 왔으니 나그네 목사로서 누구보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목사만큼 헌신할 사람 다섯 명만 있으면 교회를 넉넉히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세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65년이 넘는 이 교회에 부임한 지 2년도 안 된 나그네 목사만큼 헌신할 사람이 다섯이 없겠습니까? 저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순교적인 각오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 담임목사를 신뢰하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일사불란해야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더욱 결속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축복

그러나 목사인 저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민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강단에 오르려 “하나님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 많은 재정을 충당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예기치 못한 축복’이라는 단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주를 더 기도하고 묵상하다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갑자기 이런 돈이 왜 생겼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주신 축복이구나’ 생각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복을 주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기치 못한 은혜, 예기치 못한 함성, 예기치 못한 노래 등 45번의 예기치 못한 시리즈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은퇴 후에 살 집을 위해 종잣돈을 마련하겠다고 오랫동안 적립해 온 저금이 공교롭게도 그 주간에 만기가 된 것입니다. 아내는 주저함 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예비하신 돈이라며 한 장짜리 수표를 끊었고 청약 통장과 도장까지 봉투에 넣어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교우들이 각자의 믿음을 따라 예기치 못한 축복을 헤아려 봉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퇴직금을 받게 되자 이것은 내가 예상한 시간에 생긴 돈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하며 아내처럼 한 장짜리 수표로 품나게(?) 봉헌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을 예기치 못한 축복이라 여기며 봉헌하기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시리즈의 간증’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축을 통해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김광년